

“K-민화 디자인 보호”...한국민화뮤지엄 권리화 ‘박차’

강진군 청자촌 위치 아트숍 ‘올아트’ KOIPA, 국가유산 활용 지원 선정 ‘5천여점’ 진본 지식 재산권 체계 구축 “창작자 권익보호와 경쟁력 확보 최선”

강진군 대구면 청자촌에 위치한 한국민화뮤지엄이 고유의 민화 자산을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해석해 세계적인 K-컬처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식재산권(IP) 보호 체계 구축에 본격 나선다. 13일 강진군에 따르면 한국민화뮤지엄의 공식 아트숍인 ‘올아트’가 한국지식재산보호원(KOIPA)이 주관하는 ‘2026년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세계 속 K-컬처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고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이다.

박물관은 이번 선정을 통해 소장 중인 5천여 점의 조선시대 진본 민화를 기반으로 개발된 독창적인 디자인 상품들에 대해 전문적인 디자인 권리 보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박물관 산하 브랜드인 ‘올아트’는 그동안 민화 소장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1천300여점에 달하는 굿즈와 도서, 교구재, 그리기 용품 등을 직접 개발하며 민화의 대중화와 실용화를 선도해왔다. 특히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민화 떠오름 꽃꽂이 책’과 같은 아이디어 상품들은 민화 IP의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물관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민화 IP 활용 상품의 디자인권 출원 등 권리와 작업과 분쟁 예방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모방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오슬기 한국민화뮤지엄 관장은 “민화는 현대적 디자인으로 변주될 수 있는 훌륭한 국가유산이자

지식재산”이라며 “이번 선정을 계기로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화 기반 문화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최대 규모의 민화 전문 박물관인 한국민화뮤지엄은 전문 전시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매년 ‘대한민국민화대전’을 개최해 신진 작가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전시 및 행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박물관(061-433-977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진=정영록 기자



신안군, 흑산도에 해삼 37만마리 방류

수산자원 확보·어업인 소득 증대 기대

신안군은 13일 “전남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확보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흑산면 도목리 등 7개 지선에 어린 해삼 37만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방류는 풍요롭고 활력 넘치는 어촌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지난달 전북 17만마리 방류에 이은 조치로, 인공 서식 기반이 조성된 해역을 중심으로 추진돼 자원 조성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해삼은 ‘바다의 산삼’으로 불리는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재포획률이 82%에 달해 지역 어민

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다. 군은 이달 말까지 흑산면 다물도에 해삼 37만마리를 추가 방류하고, 증도면(백합 10만마리)과 지도읍(꼬막 5만마리)에도 수산 종자를 내보낼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00년부터 군은 전복, 해삼, 감성돔 등 48종, 총 4천87만마리의 종자를 방류하며 청정 해양의 수산자원 회복을 이끌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방류 사업을 통해 자원량을 회복하고 어촌계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을 구축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양훈기자

함평군 명품 국화 ‘나비셋별’ 품종 등록 확정

6년 연구 결실·20년 독점 권리 확보 고목 수형 특징...10월 국향대전 공개

함평군이 독자적인 국화 품종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국향대전의 명성을 높이고 명품 국화 생산지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한다. 13일 함평군에 따르면 국화 분재용으로 뛰어난 특성을 가진 신품종 ‘나비셋별(사진)’이 최근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권 등록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성과는 지난 2019년 육묘와 선발을 시작으로 6년간의 정밀 특성조사와 재배시험을 거쳐 일궈낸 결실로, 지난해 국립종자원의 재배시험과 특성검정을 통해 구별성·균일성·안정성을 인정받았다. 군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협약

에 따라 향후 20년간 해당 품종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나비셋별’은 뿌리가 굵고 함차게 뻗어나가며, 줄기가 세월을 머금은 고목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가지가 유연해 다양한 분재 수형을 만들기 쉽고, 생장 속도가 매우 빨라서 재배 효율성이 높다. 작고 선명한 탁구공 모양의 노란 꽃이 오랜 기간 피어나 분재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를 극대화한다는 평을 받는다. 군은 오는 10월 개최되는 ‘대한민국 국향대전’에서 ‘나비셋별’을 활용한 수준 높은 국화 분재 작품들을 관람객들에게 정식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문정모 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나비셋별은 수년간의 끈질긴 관찰과 국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더해져 비로소 탄생한 품종”이라며 “앞으로



도 지역 특색을 담은 우수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국화 분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기영규기자

전남광역자활센터, 신규 자활모델 발굴 주력

내달 5일까지 아이디어 공모전

전남광역자활센터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 자활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자활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전방위 지원에 나서며 취약계층 자립 기반 강화에 주력한다. 13일 전남광역자활센터에 따르면 지역 일자리와 연계 가능한 사업 모델을 찾기 위해 오는 6월5일까지 ‘2026년 전남 신규 자활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자활 관계자와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업 지속 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한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조사연구와 선진지 견학 등 후속 사업과 연계해 실제 자활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센터는 자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자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최근 지원 대상 10개소를 최종 선정했으며 총 2억8천만원의 투입해 신규 사업 안착과 판로 개척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은 자활기업이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추진되며, 경제적 성과 창출은 물론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고용 유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전남광역자활센터 관계자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자활기업이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자활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영광교육지원청 ‘온동네 초등 돌봄 협의체’ 가동

지자체·학교·지역사회 협력

영광교육지원청이 지역사회와 손잡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 위해 지역 중심 초등 돌봄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13일 영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세미나실에서 ‘영광 온동네 초등 돌봄 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기관 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는 영광군청, 초등학교, 학부모, 지역돌봄기관 관계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8년 4월까지 2년간 실무 중심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참석자들은 현재 돌봄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학교와 지역 돌봄 연계 방안, 방학 중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지원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2026년 초등 돌봄 관련 교육부 공모사업 추진 방향과 기관별 역할 분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으며, 교육지원청은 수요 조사와 조정을 총괄하고, 영광군은 자원 발굴과 활성화 체계 구축에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 향후 교육지원청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촘촘한 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기관 간의 칸막이를 낮춰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영광=김동규기자



무안군은 13일 남약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오는 19일까지 ‘걷기지도자 2급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사진은 걷기지도자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무안군 제공>

무안 남약건강생활지원센터, 걷기지도자 양성

19일까지 2급 과정 12시간 교육

무안군은 13일 “남약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오는 19일까지 ‘걷기지도자 2급 양성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걷기지도자 양성과정은 지역 사회의 올바른 걷기 문화를 정착시키고 주민들이 스스로 주도하는 건강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12시간 과정으로 기획됐으며, 사단법인 걷기협회 소속 1급 지도자가 강사로 참여해 올바른 자세와 보행 방법, 걷기운동의 효과 등 이론과 실습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안내한다. 교육의 핵심은 주민들이 올바른 걷기 방법을 익혀 자기주도적인 건강관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양성된 지도자들은 향후 지역 내 건강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시키는 주민 참여형 건강 리더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과정을 통해 센터는 주민 중심의 건강 소모임을 활성화하고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남약건강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걷기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건강 습관”이라며 “이번 교육이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물론 지역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기자

완도군, 해조류박람회서 323억원 규모 수출협약

14개국 바이어 참여...수산물 우수성 인정

완도군이 ‘2026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를 통해 지역 수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며 글로벌 시장 진출 입지를 공고히 했다. 13일 완도군에 따르면 박람회 기간 중 열린 수출 상담회에서 총 39건, 약 323억원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122억원의 실질적인 수출 계약 성과를 거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완도군이 주관한 이번 박람회는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14개국 바이어 40명과 국내 수출 기업 52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1대1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활 전복을 비롯해 조미김, 전복 어묵, 김스낵, 해조류 화장품 등 다양한 수산 식품이 소개됐다. 캄보디아와 러시아, 일본 바이어들은 완도 수산물의 안전성과 양식 노하우를 높게 평가하며 5건, 122억원 규모의 계약을 확정했다. 군은 상담회 기간 중 광주세관과 연계한 수출 컨설팅 부스를 운영해 정책 자금 지원 및 수출

인증 절차 등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지역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을 뒷받침했다. <사진> 완도군 관계자는 “체결된 협약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맞춘 지원 정책을 강화해 지역 어민과 기업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